

여러분 곁 사람이 미륵의 현신입니다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시방법계(十方界) 모든 곳을 찾아보아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감이 없는 진불(眞佛)은 형상과 자취가 없고 생멸(生滅)이 없이 온 누리에 변재(遍在)하여 있습니다.

실상(實相)은 텅 비고 고요하여 볼 수가 없지만 한 티끌 한 빛깔 속에 불멸의 본체는 드러나 있으며 여러분이 듣고 보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금(古今)이 없고 시종(始終)이 없는 묘용(妙用)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신(法身)을 갖추고 아름다운 불성(佛性)을 지닌 미완(未完)의 여래(來)입니다. 자성(自性) 밖에 진리가 없고 부처가 따로 없으니 찾으면 잃게 되고 구하면 멀어집니다.

마음은 부처를 빚어내는 진리의 원천이요, 번뇌는 중생과 부처를 분별하는 근본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 아님이 없고 일진(一塵) 일색(一色)이 불국토 아님이 없으니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여래(來)의 덕성(德性)을 갖춘 미륵(彌勒)의 현신입니다.

남마다 만나는 사람이 자비와 나눔을 지닌 문수(文殊)와 보현(普賢)입니다.

무진 번뇌 속에 천년(千年)의 어둠을 제거하는 광명이 있고 미혹가운데 만년(萬年)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기용(機用)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얽매인의 틀을 풀어 헤치고 새들이 나무에 앉아 실상(實相)을 노래하니 보고 듣고 깨닫는 이것을 떠나서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마(會魔) (알겠는가?)

모두가 참 생명을 얻는 부처님오신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푸르른 신록 속에서 꽃들은 살며시 향기로운 우주의 문을 열고, 지저귀는 새들은 생명의 신비를 노래하는 봄입니다. 역겹의 세월에 한 번의 봄이야 차나(刹那)에 불과하지만 지금 여기, 꽃피고 산 새우는 순간이 바로 영원(永遠)이니 유아독존(唯我獨尊) 큰 소리에 모두가 참 생명을 얻는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웃이며 동반자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은인과 원수가 어울려 태평가를 부르고, 부처와 중생이 함께 영산회상을 노래하니,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모두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상생하는 대승적 화해의 길을 열어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소중하듯이, 이웃의 행복이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종교적 확신이 이웃에 대한 공격과 배타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성스러운 가르침이 이웃에 상처를 주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정치적 신념 또한 '나'를 드러내고 '남'을 구별하는 수단이기 보다는, 시민

의 권리와 사회적 행복을 위한 정의의 길이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은 나와 남을 나누고, 상대를 틀리다고 몰아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의 주장을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소통이 시작되고 스스로를 조용히 관조하며 끝없이 되묻는 성찰이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자성과 쇄신을 위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 원인을 찾고, 남을 탓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허물을 겸허히 성찰하여 종교적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며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등 5대 결사의 실천을 통해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과 함께 더욱 밝은 광명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기쁨으로 맞는 초파일, 우리 사부대중은 오늘을 동체대비와 중생구제의 큰 발심을 하는 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상생하는 삶을 살자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2000만 불자여러분, 그리고 온 국민과 더불어 봉축 드립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智慧)의 선각자(先覺者)이신 부처님께서서는 새로운 희망과 생명이 물결치는 봄날, 그윽한 무우수 꽃향기를 맡으시며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위한 대비(大悲)의 원력과 무량한 복덕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서는 만 중생이 불성(佛性)을 지닌 절대평등자임을 선언하시고 깨달음의 요체와 대승의 방편으로 무명(無明)과 탐·진·치 삼독에 물든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명과 행복에 등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체중생 삼라만상이 하나의 그물고처럼 얽혀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와 무관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임을 알고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존경하는 2000만 불자와 국민여러분, 우리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다. 중생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보살도 아프다는 비원(悲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같은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고통 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어려움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번뇌로 길들여질 때 지옥을 만들고 자비와 지혜가 가득할 때 극락과 해탈의 길을 열어간다는 진리를 깨달아 오늘 밝히는 하나의 연등이 우리 모두의 미혹과 어둠을 걷어내고 이 땅에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다 같이 기원합니다.

만 중생 편안케 하려 이 땅 오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부처님께서서는 끝없는 구도의 여정을 한 편의 영화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의 탄생이 오욕의 향락을 위함이 아니라 만 중생을 편안케 하기 위하심을 온 세상에 선언하시고, 사방의 일곱 걸음으로 두루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을 보이시며 이곳 인고(忍苦)의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이신 마지막 종착지는 '열반'이었습니다. 자그마치 수 백 겁에 걸쳐 이어진 전생 이야기와 이 땅에서의 80년의 인연 동안 낱알이 현현한 행적과 역사적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열반'이라는 제목의 한편의 드라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우리 중생의 지견(知見)을 열고자 하였고, 보이셨으며, 깨달아, 그 자리에 들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모든 구수와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 해방이 미세한 모든 생명까지도 한 치

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보이신 위대한 깨달음이자 지극히 올바르고 평등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계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상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특히 인류가 대립하고 갈등하며 민민할 때 이 희망의 전언은 우리의 여민 가슴에 파사롭고 향기로운 전당의 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 멀리 인도 롬비니 동산에서 날아온 봄소식에 동서가 함께, 모든 생명이 함께, 그리고 저 또한 함께 기뻐하며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불기 2555년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심을 다시금 봉축하며, 세상의 모든 중생, 모든 부처님의 생일을 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수행으로 청정 자성을 밝힙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삼서로운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은 햇살이 되어 일체 유정을 감싸고, 수행으로 하나된 자비복덕은 불은(佛恩)이 되어 넘치는 날, 석가모니부처님은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 앞에 선 자 높고 낮음의 지위가 없으며, 크고 작은 분별이 없는 청정자성(淸淨自性)의 보공(寶宮)이 되었으며, 지혜가 가득하여 보고 듣는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26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보고 듣는 경계 속에 탐진치(貪瞋癡)를 넘지 못하고, 본래 청정한 자성을 망각한 미혹중생의 업 속에서 속세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자여러분!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경계입니다. 너와 나라는 분별의 경계이자, 선악 그리고 미혹과 지혜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는 우리의 습(習)이 만든 마음의 경계입니다. 수행으로 청정 자성을 밝히고 집착하지 않는 대자재(大自在)의 인연으로 경계를 넘는 수승한 가르침을 석가모니부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수행정진으로 심인을 밝히고 2000만 불자의 가슴속에 자성의 등불을 밝혀 복과 지혜 가득하며 뜻하는 바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화평과 행복을 위해 공헌해야 합니다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꽃잎이 흩날리는 화창한 사월 초파일에 부처님께서 인류의 화평과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고통 받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신 날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어서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덕성이 있습니다. 무명(無明)에 가리어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에게 밝은 빛을 주어서 실상을 바로 알아 안락하게 하려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의 덕성입니다.

지구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그 자체가 고통이며,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어리석은 무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자비와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무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우리 서로가 자비와 지혜를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고통 받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 고통없는 세계에서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크신 인연으로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아상과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혁신을 통하여 남과 이웃을 위하고 인류의 화평과 행복을 위해 공헌해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공존공영하는 부처님의 낙도가 실현되기를

도훈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온 우주에 충만하여 상주불변으로 계시는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서 고통(苦海)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석가 화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세상에 오게 된 것은 큰 구름이 일체만물을 윤택하게 함과 같아서, 목마른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여의게 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니, 중생을 안락하게 함은 세상에 능히 나를 미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음(法音)을 듣고 첫째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일체유정(一切有情)들이 받고 있는 천차만별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우리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한 불자들은 광대일만한 자비행을 실천하여 능히 이타자리(利他自利)의 서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나아가 위엄이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무외대비(無畏大悲) 정신이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광대일만하고 무외대비한 정신을 전개하여 이 땅의 정토건설에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진실한 효행이 되고 진실한 충성이 되어서 삼세불은(三世佛恩)과 사대은혜(四大恩惠)를 보답하는 불작불행(佛作佛行)이 됩니다.

오늘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 우주에는 법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각자의 마음 속에는 자성(自性)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우주에 범등(法燈)을 밝힌다' 라고 하는 것은 시방삼세에 나타나는 자연과 유정을 두고 법신 당체법문을 밝게 볼 수 있는 법안(法眼)의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각자의 마음속에 자성의 등불을 밝히는 불교의 수행은 여실지견(如實知見)으로 실상같이 자심(自心)을 알고 내 잘못을 깨달아서 지심으로 참회하고 모든 선법(善法)을 실천할 수 있는 혜안(慧眼)의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연등을 만들고 등불을 밝히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속에 자성의 등불을 밝히기 위한 방편(方便)의 법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날과 조종탄생절을 함께 하여 법열과 환희가 온 누리에 충만할 날입니다. 우리가 밝힌 이 두 가지 등불 아래서 능히 불작불행(佛作佛行) 할 수 있는 교법실천의 공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와 인류가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부처님의 낙도가 실현되기를 일심(一心)으로 서원합니다.

